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최나영환 감수 : 길광수 전화번호 : 051-797-4770 · E-mail : chnayoung@kmi.re.kr / kdong@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지난해 소매 물류시장 규모, 콜드체인이 1위 ... 성장률은 주류부문이 가장 높아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알리바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 위해 말레이시아 적극 활용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그리스-불가리아, 철도 프로젝트 계획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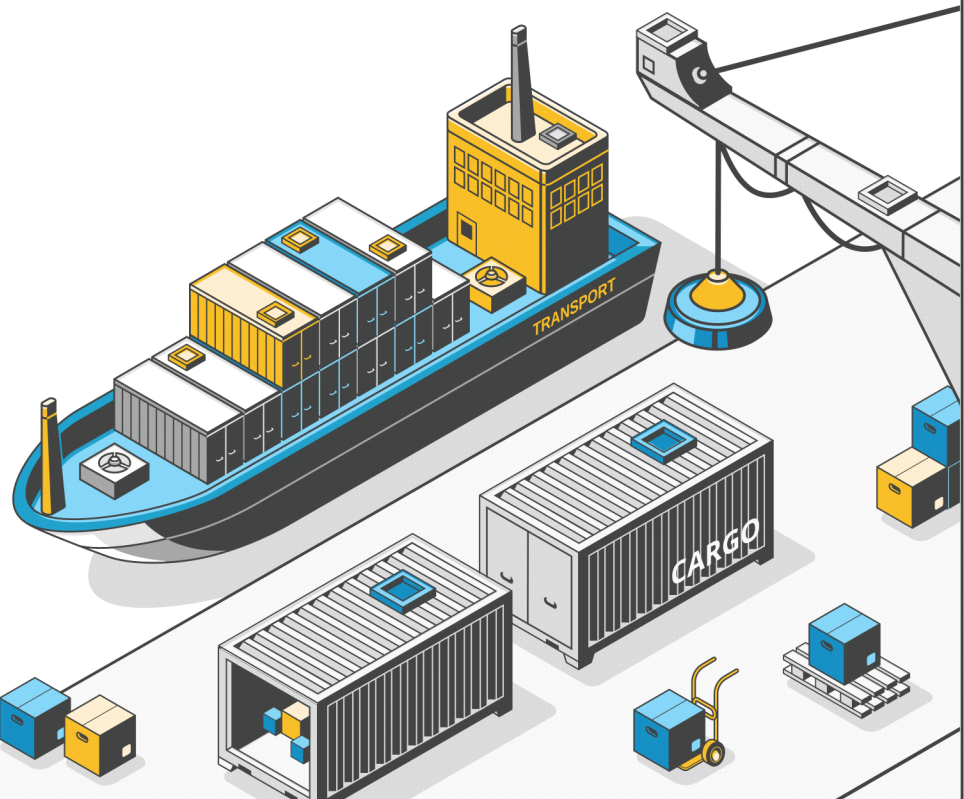
- LB항, Pier B 철도 프로젝트 미 해사청 승인 받아
- 미국, 리쇼어링 정책 난관 봉착

● 글로벌 물류시장 이슈분석

- EU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태평양 지역 연계 계획

● 공지사항

-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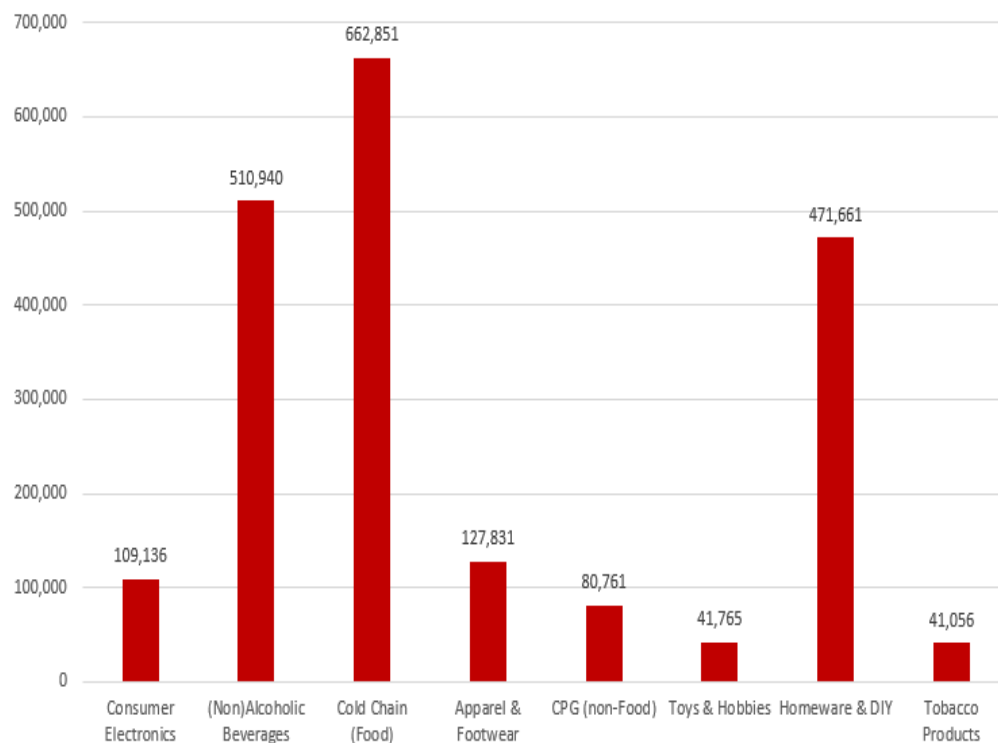
지난해 소매 물류시장 규모, 콜드체인이 1위 ... 성장률은 주류부문이 가장 높아

2021년 글로벌 소매 물류시장 규모는 2조 유로를 상회함

- 이를 세부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식자재 운송을 위한 콜드체인 물류시장이 약 32.1%에 달하는 6,628억 5,100만 유로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류를 포함한 음료 시장이 5,109억 4,000만 유로(약 24.7%), 가정용품 및 가구 시장이 4,716억 6,100만 유로(약 22.8%)로 뒤를 이음
- 이어서 의류 및 신발 시장이 1,278억 3,100만 유로로 약 6.2%, 가전제품 시장이 1,091억 3,600만 유로로 약 5.3%, 음식류를 제외한 일상 생활용품(Consumer Packaged Goods; CPG) 시장이 807억 6,100만 유로로 약 3.9%를 차지함

글로벌 세부 소매(Retail sub-sector) 물류시장 규모(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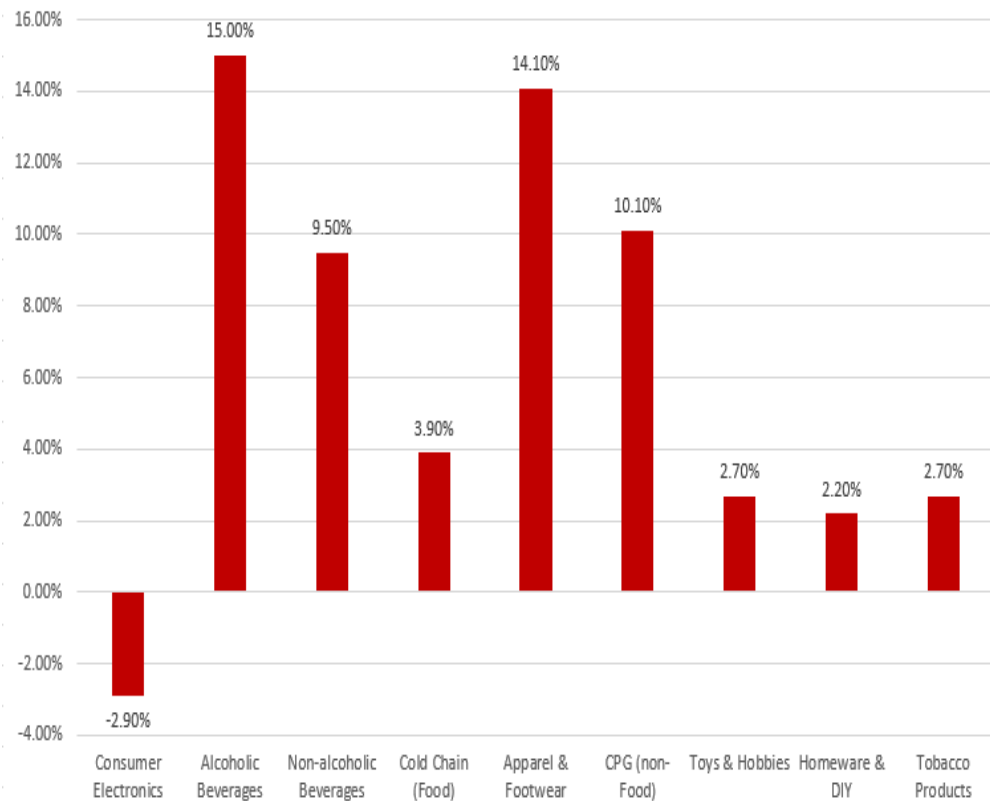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Retail: A Market in Transition*, 2022.

- 2021년 글로벌 세부 소매 물류시장 부문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주류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의류 및 신발 시장이 그 뒤를 이었으며 전 부문에서 가전제품 시장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주류 및 비주류 시장은 각각 15%와 9.5%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의류 및 신발 시장이 14.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가전제품 시장은 -2.9%의 성장률을 기록함
 - 주류 시장이 2021년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주요 요인 중 하나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제재로 인한 일부 판매 제한이 완화된데 따른 반사 이익으로 볼 수 있음

글로벌 세부 소매(Retail sub-sector) 물류시장 부문별 성장률(2021년)



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Retail: A Market in Transition*, 2022.

참고자료 : Transport Intelligence, *Global Retail: A Market in Transition*, 2022.

알리바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 위해 말레이시아 적극 활용

- ▶ 알리바바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최근 페낭 인근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함
 - 알리바바는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위치 및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쿠알라룸푸르 공항 인근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음
 - 아세안을 비롯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핵심 물류거점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어 페낭에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페낭개발공사(Penang Development Corporation)와 물류단지 개발 및 타당성 연구 수행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음
- ▶ 물류단지는 페낭 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항공 화물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물류허브 역할을 수행 것으로 전망됨
 - 물류단지 조성 예정지는 페낭 국제공항에 위치한 Batu Maung Air Cargo Complex 인근 지역으로 전자상거래 항공 화물 수요를 충족하고 물류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물류단지 총 면적은 약 37,000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이어 알리바바의 두 번째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됨

쿠알라룸푸르 공항 인근 알리바바 물류센터



자료 : www.aircargonews.net, (검색일 : 2022.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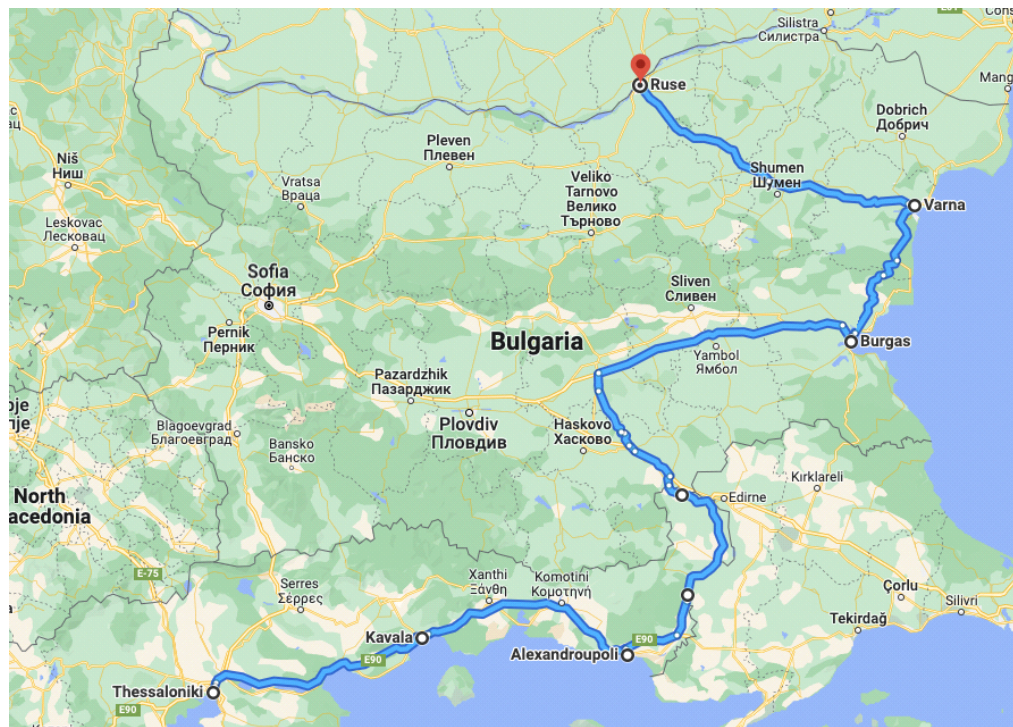
- 알리바바는 물류단지 투자 이외에도 쿠알라룸푸르 항공 노선을 점차 늘리면서 배송 범위도 확대하고 있으며, 72시간 내 글로벌 배송 완료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핵심 물류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 최근 알리바바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영국 히드로 공항까지 직항 노선 출시 및 화물 적재 능력을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화물 운송시간 30% 절감 및 물류비 10%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알리바바는 지난 몇 년 동안 항공 화물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글로벌 주요 항공사와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음
 - 향후 말레이시아를 핵심 물류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아세안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및 남미까지 직항 노선을 도입해 전자상거래 물류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전망됨

그리스-불가리아, 철도 프로젝트 계획

●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그리스 북부에서 불가리아를 거쳐 루마니아까지 이어지는 철도 개통에 협력하기로 함

- 테살로니키 및 카발라 항과 알렉산드로폴리스 항에 이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경의 부르가스, 바르나 및 루세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그리스와 불가리아 간 철도 연결의 주요 프로젝트는 알렉산드로폴리스 항과 오르메니오 국경 횡단 철도 연결임
- 알렉산드로폴리스 항은 그리스 북서쪽인 터키의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 오르메니오 국경 교차점은 알렉산드로폴리스에서 북쪽으로 불가리아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한 그리스 최북단 국경 지점임
- Karamanlis 그리스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철도 연결에 투자하고 북부 그리스 항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는 유럽 남동부의 물류 센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이러한 철도 개발로 테살로니키는 남동부 유럽을 통과하는 교통의 관문이 될 것이며 알렉산드로폴리스 항은 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힘
- 본 철도건설 프로젝트는 2023년에 체결될 예정이며, 2027~2028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스-불가리아 간 철도 프로젝트 노선



자료 : www.railfreight.com, (검색일 : 2022.04.19.)

- ▶ 3월 말 그리스와 불가리아 간 교통장관 회의에서는 그리스 도시 항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부 및 북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 Nikolay Sabev 불가리아 교통부 장관은 “불가리아 정부는 알렉산드루폴리스 항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Karamanlis 그리스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알렉산드루폴리스 항과 보스포로스로 향하는 선박의 관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며, 그리스와 콘스탄차와 같은 흑해 항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함

LB항, Pier B 철도 프로젝트 미 해사청 승인 받아

▶ LB항이 미국 해사청(The U.S. Maritime Administration)으로부터 항만 화물 흐름을 향상하기 위한 Pier B 철도 프로젝트를 승인받았음

- Pier B On-dock 철도 지원 시설은 철도를 통한 화물 흐름 향상을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임
- Pier B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매일 17대의 복합운송 열차가 항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LB항은 항만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의 약 35%를 철도로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교통부(USDOT)는 지난 2021년 12월 LB항의 Pier B 프로젝트에 5,23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프로젝트는 총 15억 달러 규모임
- 미 해사청은 지난 19일 Pier B 철도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최종영향보고서를 발표함

▶ Pier B 프로젝트로 LB항의 화물 흐름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화물을 온 도크 레일(on-dock rail)을 통해 운송하게 되면 컨테이너를 철도를 통해 터미널로 직접 반입할 수 있으므로 트럭 이동 횟수를 줄일 수 있음
- LB항의 Mario Cordero 전무는 "Pier B 철도 지원 시설을 통해 화물을 더 빠르게 운송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함
- LB항 위원회의 Steven Neal 위원장은 "이 프로젝트는 화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LB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함

▶ Pier B 프로젝트는 2032년에 완공될 예정임

- 프로젝트 1단계 건설은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기존 Pier B 철도 야적장의 처리능력을 두배로 증설할 예정임
- Pier B 프로젝트는 미국 해사청의 승인 외 주(State) 및 지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LB항은 향후 일정에 대해 제시하지 않은 상태임

▶ Pier B 프로젝트 외에도 항만 화물 흐름 개선을 위해 캘리포니아 내륙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LA·LB항에서 새크라멘토 항까지 연결되는 30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내륙항(CIP) 프로젝트는 3년 동안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
- 캘리포니아 내륙항(CIP) 프로젝트는 컨테이너 흐름 향상 및 내륙 운송 비용 절감을 위해 4개의 주요 내륙 허브 항과 7개의 소규모 위성 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LA항의 Gene Seroka 전무이사는 "해상 터미널은 내륙을 오가는 컨테이너를 위한 창고가 아닌 환송 시설이어야 하며, 수출입을 위한 시설을 내륙항에 밀집시켜 수입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수출할 농산물 및 기타 상품을 채워 항만으로 운송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함
- 미 농업운송연합(AgTC)은 내륙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 내륙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미 농업운송연합의 Peter Friedmann 전무이사는 "농산물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용을 최대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륙 운송 비용을 줄이는 만큼 우리 농산물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함

● 캘리포니아 내륙항 프로젝트는 향후 5년 내에 완공될 예정임

- GLD Partners의 Adam Wasserman 관리 파트너는 “캘리포니아 내륙항 프로젝트는 향후 12~18개월에 걸쳐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시설은 3~5년 내에 완공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GLD Partners와 LA·LB항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카운티, 주 및 연방 기관, 교통 및 환경 이해 관계자로부터 조직적으로 지원 연합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함
- Wasserman 관리파트너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캘리포니아 내륙항 프로젝트를 공급망 투자 및 개발을 위한 ‘regional accelerator’로 지정했으며 프로젝트 및 인프라 지원에 참여할 예정이며, 개별 시설에 대한 자금 조달은 수출·입 업체 및 물류회사에서 지원받을 예정임

Pier B 프로젝트 홍보 영상



자료: Port of Long Beach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WNsuSL68ngw>

미국, 리쇼어링 정책 난관 봉착

- 최근 Financial Times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확실한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주목받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보류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임
- 특히 독일 유명 자전거 업체 큐브 바이크(Cube Bike)를 비롯한 유럽의 제조기업들이 중국 및 아시아에 위치한 공장을 유럽 본토로 이동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리드타임(leadtime)이 너무 길어지자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추진했었음
 - 코로나19 이전에는 리드타임이 평균 3개월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났음
- 그러나 기존의 우려되던 인플레이션 공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무섭게 치솟는 물가와 임금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리쇼어링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분석임

40년 만에 7%대로 치솟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자료: Financial Time "US inflation soars to 7% for first time since 1982" (2022.1.13.) 참조

-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핵심 품목을 지정하고 자체적인 분석을 거쳐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음
- 그러나 지난해보다 11.2% 급등한 소비자물가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기업들이 쇼어링 전략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미국 기업들은 과열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인력의 수급 균형이 깨져 매우 심각한 구직난에 있는 미국 제조업이 리쇼어링을 하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임

EU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태평양 지역 연계 계획

- ▶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개발도상국 투자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을 발표함
 - EU는 2027년까지 6년간 유럽 역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기후(청정에너지)·운송 등의 사업 분야에 3천억 유로를 투자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교역을 확대할 계획임
 - EU는 세계 각국과 회복탄력성이 있는 공급망을 연결고리로 글로벌 무역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임
 - 자금은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EU 산하 금융기관 및 회원국 정부, 정책개발은행, 민간 등으로부터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기금플러스(EFSD+)’ 등이 보충할 계획임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EU의 가치 및 신뢰에 기반한 글로벌 연결고리 구축
원칙	민주주의, 투명성, 녹색·청정, 안보, 민간투자
규모	2021~2027년간 3000억유로(약 400조원)
지원 분야	디지털, 에너지, 교통(복합운송), 보건, 교육(연구개발)
자금 조달	EU 산하 금융기관 및 회원국 정부, 정책개발은행, 민간 등 참여

자료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6433 (검색일 : 2022.4.15.)

- ▶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은 EU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글로벌 연결고리 구축 사업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됨
 - EU의 가치 및 원칙인 민주주의, 인권, 기본자유 등을 바탕으로 투명성, 녹색·청정, 안보, 민간투자 등이 강조됨¹⁾
 - 투자 우선 분야는 디지털, 에너지, 교통(복합운송), 보건, 교육(연구개발) 분야임
 - 향후 글로벌 게이트웨이 위원회의 지침(guidance)에 따라 팀유럽이니셔티브(Team Europe Initiatives)가 신설되어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관리가 이루어짐
 -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해 사업자문단(Business Advisory Group)도 발족될 예정임
 - 이와 같이 팀유럽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EU의 기관·회원국·민간 영역과 함께 파트너 국가의 정부, 사회단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될 계획임

1) 6대 원칙: ①민주주의 가치와 높은 기준(democratic values and high standards), ②거버넌스와 투명성(good governance and transparency), ③평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s), ④녹색·청정(green and clean), ⑤안보 중심(security focused), ⑥민간 투자의 참여 촉진(catalys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6434 참조, (검색일 : 2022.4.15.)

글로벌 게이트웨이 5대 투자 우선순위



자료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1_6490 (검색일 : 2022.4.15.)

➤ **교통물류 분야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지속가능(스마트)하며 회복탄력성·포용력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임**

-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이 포함되며 복합운송 차원에서 물류 및 국경통과 등이 주요 내용임
-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목적임
- 우선적으로 기존의 유럽 횡단 교통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 및 지중해 횡단 교통망(Trans-Mediterranean Transport Network: TMN-T) 등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²⁾
-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 EU는 역외에 수소 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수소를 역내로 수입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이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원료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임

➤ **EU는 공급망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전략에 앞서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위한 EU 전략(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을 발표한 바 있음**

- 지난해 9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를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환경, 다자주의 및 규범에 기초한 국제

2) <https://infra.global/eu-global-gateway-industry-offers-help-to-create-project-pipeline> (검색일 : 2022.4.15.)

- 질서,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 다극 체제 등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했음
- 이 전략에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 녹색 전환, 해양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디지털 연계성, 안보와 방위, 보건 등 7가지의 우선순위 분야가 포함됨³⁾
 -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무역 공급망 및 안보 보장이 기본 목적임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위한 EU 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실천 방안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번영	가치사슬 강화, 교역관계 다변화, 국제무역 규범 확립	말레이시아, 태국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 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인도 투자보호협정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녹색 전환	기후변화 대응	그린 얼라이언스 구축
해양 거버넌스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 거버넌스 강화 및 불법 어업 대응	수산 관리·통제 체계 지원 지속가능한 수산 파트너십 협정
디지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디지털 파트너십 네트워크 확대, 연구개발 협력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호라이즌 유럽(연구개발 정책)
디지털 연계성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연계성 파트너십(일본, 인도)
안보와 방위	해상통항로 확보, 해양안보	해군 파견
보건	의료 체계, 재난 예방	협동 연구

자료 : www.eeas.europa.eu, (검색일 : 2022.4.15.)

- EU는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을 통해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과 정치·국방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무역·경제 관계 다양화와 공동의 가치·원칙에 부합하는 기술 기준과 규제를 발전시켜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이 추진됨
 - EU는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공급망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과 연대를 모색함
 - EU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s, PCA), 무역 협정, 그린 얼라이언스 및 디지털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과 다자주의 복원 등을 모색함
 - 이와 같이 EU는 지경학·지정학 측면에서 세계의 무게중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기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전략적 다자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1_4709 (검색일 : 2022.4.15.)

●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다변화·다자주의 추진 방식은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본국유턴)으로는 공급망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공급 다변화가 해결책으로 제시됨⁴⁾
- IMF는 자국 내 조달 보다는 더 많은 공급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회복이 가능하다고 진단함
- 이를 위해 공급 루트의 다양화(diversification)와 공급 대체성(substitutability)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양화는 중간재 해외조달이 효과적이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무역비용 절감(비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정책 불확실성 해소, 법 기반 안정성 등이 전제되어야 함
- 대체성 확보는 생산 공정의 유연성과 국제 공급 표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기반한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가능함

IMF·세계은행의 글로벌 공급망 해결 방안

구분	내용	실천 방안	정책
IMF	공급 루트의 다양화	중간재 해외조달	무역비용 절감(비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 해소, 법 기반 안정성
	공급 대체성 확보	생산 공정의 유연성, 국제 공급 표준화	디지털화에 기반한 정보교환
세계은행	공급자 네트워크 투자	금융과 기술 지원	전략물자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외부 충격 대응	

자료 : KMI 정리

● 세계은행(World Bank)도 IMF와 비슷한 입장으로 공급 다변화가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함⁵⁾

- 코로나19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의 리쇼어링 현상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기업들은 공급자 네트워크 투자를 유지했으며, 공급자에게 금융과 기술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특히 개도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효과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가능함
- 정부는 전략물자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에 투자를 늘려 수출제한 조치 등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

4) IMF, "Global Trade and Value Chains in the Pandemic", World Economic Outlook, 2022.4.12.

5) World Bank, Reshaping GVCs in Light of COVID-19, 2022.3.3.

EU 전략 관련 국제물류 투자 유망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참고
분야	디지털, 에너지(녹색·청정), 교통(스마트·복합운송)	공급망 다변화, 수소 등
국가(지역)	보스니아, 알바니아, 터키	유럽 횡단 교통망
	이탈리아, 그리스	지중해 횡단 교통망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글로벌 가치 사슬
	인도	디지털, 호라이즌 유럽
	태평양	지속가능한 수산

자료 : KMI 정리

- EU 전략 관련 국제물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은 향후 디지털 화에 기반한 녹색·청정 에너지, 스마트·복합운송 등의 물류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는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수소 등 에너지(원료) 운송과 연계가능한 유망한 사업으로 보임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 그린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위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의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인도와는 디지털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속가능한 수산 사업을 위한 태평양 지역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코로나19, 미·중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충격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음
- EU가 추진하는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참고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가 요구됨
- 우리나라도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 전략을 마련해 공급망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재세계화 (reglobalization)와 공급망 안정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들과 연계한 디지털(첨단기술), 녹색·청정 에너지, 스마트 물류(복합운송) 분야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2022년 3월 23(수) 09:00 ~ 5월 4일(수) 16:00 까지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사업대상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지원
- 신창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보조

2)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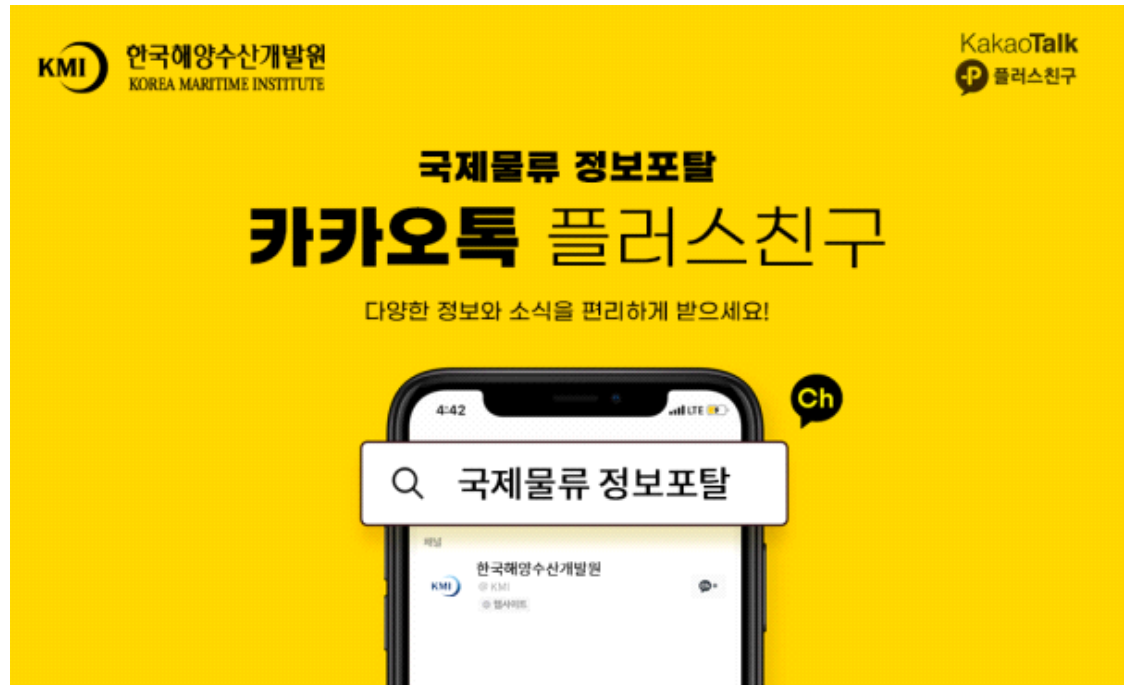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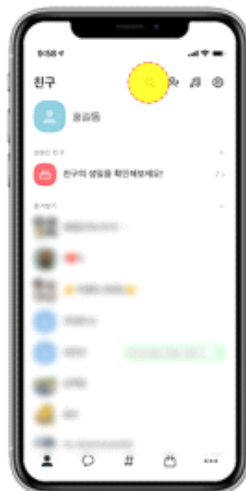
▶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실시
www.youtube.com/watch?v=g1NNUz8iYQY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